

미국 Lock Haven University of Pennsylvania 체험수기

행정학과 한인영

안녕하세요!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미국 Lock Haven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했던 한인영이라고 합니다. 제 체험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합니다.

락 헤이븐 대학교는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가운데 위치한 대학입니다. 동부 표준시를 사용하는 곳으로 한국 시간보다 14시간이 느리며, 서머타임일 경우에는 13시간이 느립니다. 기후는 한국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위치한 곳은 시골이며 가장 가까운 공항(스테이트 칼리지 공항)까지 차로 약 1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써 놓으니 산골에 있는 조그만 학교인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교환학생을 다시 온다면 망설임 없이 다시 고를 만큼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락 헤이븐 대학교는 교환학생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있는 학교입니다. 모든 교환학생이 기숙사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교환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한 일주일간의 오리엔테이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도와주는 교내의 동아리 학생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과도 한 학기 동안 교류하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대부분 친절하며, 제 경우엔 교수님들도 교환학생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락 헤이븐에 거주하는 주민과 교환학생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제 경우엔 호스트 패밀리와 매우 친하게 지내며 종종 저녁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내에 테니스 코트, 실내 클라이밍장, 농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테니스 클럽 없음)

도보로 15~20분이 걸리는 다운타운에는 우체국, 작은 마트, 바, 음식점, 작은 영화관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화려하고 왁자지껄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조용한 것을 좋아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운행하는 교내버스 '트롤리'가 있어 교내 순환은 물론, 주중 저녁에 조금 떨어져 있는 월마트로 왕복 운행을 합니다.

락 헤이븐 대학교는, 학교 자체는 시골이지만 뉴욕, 워싱턴 D.C. 등 동부의 주요 도시들과 인접하여 있어 여행하기 좋으며, 교내의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저렴한 가격에 버스를 이용한 당일치기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클리블랜드, 뉴욕, 게티스버그를 학교를 통해 다녀왔습니다.(워싱턴 D.C.도 갈 수 있었지만, 알람을 잘못 맞춰 버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잘 하는 일인가...' 라고 생각하며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한국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다녀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좋은데 짧은 글로 뭐라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의 경험이 결코 후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면 직접 가서 느껴보십시오. 저는 미국의 넓은 하늘과 낮게 깔린 구름, 그리고 락 헤이븐의 종소리와 언제 볼지 모를 좋은 친구들이 항상 그리울 것입니다.

직접 느껴보러 가시기 전에 궁금한 게 있으면 inyunghan1369@gmail.com으로 물어보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